

재경강진군향우회, 한마음 한뜻으로 고향사랑기부

재경강진군향우회가 1일 서울 구로구 안양천 축구장에서 강진원 강진군수, 장인홍 구로구청장, 양광용 광주전남시도민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차 정기총회 및 제1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1부 입장식, 2부 개회식 및 체육대회, 3부 공연 및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정치, 경제, 법조, 행정, 사회, 문화계 등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진 출신 인사 300여 명으로 구성된 재경강진군향우회는 이 날 고향의 정을 나누고, 한마음 한뜻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고향과 향우회를 위해 애쓴 향우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민상기 부회장에 국회의원 표창, 최연진 청년회원에 전라남도지사 표창, 이매순 신현면 여성회장 및 이해숙 작천면 여성회장에 강진군수 표창, 이대진 이사에 광주전남시도민회장이 수여되었고, 송길태 홍보위원이 자랑스런강진인 상



을 수상했다.

특히 조희술 재경강진군향우회장(세무법인 다정 대표)과 여상진 재경강진군향우회 청년회장(서울금거래소 대표)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쾌척하여 강진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조희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경강진군향우회 정기총회 및 한3마음체육

대회에 참석해 주신 향우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향우 회원 모두가 고향 강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며 강진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여상진 청년회장은 "깊어가는 가을에 향우님들과 정담을 나누게 되어 기쁘다"며 "향상 우리의 고향 강진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출향인 분들의 끊임없는 고향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며 "반값관광, 육아수당, 빈집리모델링 등 대한민국을 선도하겠다"며, "소중한 기부금을 투명하게 이용하여 앞으로 좋은 기업사업과 답례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강진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한우, 쌀, 파프리카, 전복 등 강진 대표 농수축산물과 푸소 체험권, 강진사랑상품권 등 다채로운 품목들이 마련돼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재경강진군향우회 제71차 정기총회 및 제1회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조희술 향우회장, 여상진 청년회장 고향사랑기부금 각 5백만원 기탁



광주시광산구새마을회, 광주송정역 광장 지역주민들과

'2025 친환경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사)광주광역시광산구새마을회(회장 안덕홍)는 지난 10월 31일 금요일 광주 송정역에서 '2025 친환경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였다.

이날 직거래장터는 광산구새마을회 윤성미사무국장 사회로 진행했으며, 광산구하남동, 동곡동, 평동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과 우리밀 제품, 그리고 된장, 청국장, 고추, 미역, 다시마, 고사리, 고구마, 땅콩, 밤 등 각 우리지역 특산물이 다양하게 판매되었다.

또한, 이웃사랑 소의계축을 위한 나눔

활동과 탄소중립 EM 비누 나누기 캠페인, 송정리 이야기 사진전도 함께 진행되어 따뜻한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2025 친환경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도시민과 농촌이 직접 만나는 뜻깊은 자리로, 농가 소득 증대뿐 아니라 도농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사가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는 따뜻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응원합니다.

/오덕근 기자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설립 10주년 따뜻한 공동체 실현 앞장

10년간 모금액 61억, 군민 11만 2천여 명 혜택 받아

완도군행복복지재단(이사장 박신희)은 지난 10월 30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미래 10년의 비전을 밝혔다.

"함께 나는 10년, 희망찬 군민 행복"을 주제로 열린 기념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해 도·군의원, 후원자, 기관·사회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재단 운영 현황 보고 ▲'재단이 걸어온 길' 영상 상영 ▲6대 이사장 및 임원 임명장 수여 ▲장기·고액 후원자 감사패 전달 ▲행복복지기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지역 복지를 위해 헌신한 후원자들의 공로를 기리는 시간에는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다.

2015년 10월 2일 출범한 완도군행복복지재단은 현재 이사 15명, 감사 2명, 사무국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 자산 60억 원(출연금 50억 원, 잉여금 10억 원)을 바탕으로 복지 기금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모금액은 61억 6천만 원(현금 47억 2천만 원, 현금 14억 4천만 원)에 이르며, 지금까지 11만 2천여 명의 군



민이 혜택을 받았다.

완도군행복복지재단은 설립 10주년을 계기로 복지 기금 확충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복지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신희 이사장은 "지난 10년은 군민의 나눔과 연대가 만들어낸 값진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철 군수는 "재단은 군민 복지 향상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행정과 재단이 함께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주은행, 임직원·대학생 홍보대사와 '광주천 플로깅 봉사활동'

광주시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사업에 동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 서구 동천동 광주천 일대에서 임직원과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30여 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광주천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사업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ESG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산책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제조업을 친환경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 하천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플로깅 세트(집게, 생분해 봉투 등 친환경 용품)를 활용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더했다. 봉사활동 중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플로깅 문화' 확산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은행은 이번 활동을 통해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가 함께 지역을 위해 땀 흘리며 세대 간 공감과 협력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들은 "은행 임직원과 함께 지역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양진 광주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깨끗한 광주천을 가꾸고 지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함평군 함평읍 주민자치회, '국향장터 아나바다' 행사 성료

'주민이 만드는 행복한 마을'... 나눔과 화합의 주민제안사업 호응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 함평읍이 주민자치회 주민제안사업의 일환으로 '국향장터'를 열어 주민 간 나눔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함평군은 4일 "함평읍 주민자치회(회장 이경진)가 지난 31일 함평농협하나로마트 옆 주차장에서 '국향장터 아나바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향장터 아나바다'는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을 실천한 행사로 '함평읍 주민이 만드는

행복한 마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서는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행사 수익금 전액을 사랑의 열매에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부침개, 시혜 등 다양한 먹거리도 무료로 제공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축제 분위기를 돋웠으며, 행사 당일



에도 물품 기부를 상시 접수하며 참여형 나눔 장터의 취지를 한층 강화했다.

이경진 함평읍 주민자치회장은 "국향장터는 주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정을 나

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함평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

